

大學院間 協同體制의 現況과 改善

都 甲 守

(崇田大 化學工學科 副教授)

大學院間 協同體制가 定着하기 위해서는 學生, 教授, 行政팀과 大學當局이 同一體가 되어야 한다. 學生은 積極的인 참여 意識을 가져야 하고 教授는 헌신적인 協助로 同參하며, 行政팀은 새로운 프로젝트 開發과 行政改善에 희생적으로 奉仕하고, 大學當局은 충분한 財政的 支援을 감당하여야 한다.

I. 머리말

해방 후 學制改編과 더불어 1949년 몇몇 대학에 大學院이 설치된 이후 35년 동안 대학원이 본래의 임무인 産業社會가 요구하는 人材의 양성과 지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괄목할 만큼 큰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였다.

특히 1970년도 초반부터 급진적인 經濟成長과 고도의 産業化에 따른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高等教育機關의 膨脹과 함께 대학원도 팽창하였고, 한국과학기술원(前 한국과학원)이나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같은 特殊大學院과 平生教育을 위한 각종 專門大學院도 많이 개설되었으며, 최근에는 大學院中心教育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大學院教育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심은 國家的 次元이나 教育的 次元으로 볼 때 꼭 다행한 일이나 갑작스런 膨脹은 많은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즉 大學院教育의 質的 水準 維持 및 效率的인 運營, 大學院 豫算의 확보, 大學院間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이 당면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여러 각도로 고려될 수 있으나 필자는 大學院間의 協同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이를 통하여 유능한 教授를 상호 補完할 수 있고, 각종 教育施設, 教育器機 및 圖書館의 共同活用으로 경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教育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研究의 공동 참여, 세미나나 체육 행사 등 각종 행사의 공동 참여로 共同體意識을 모든 대학원들에게 심어주므로 가장 閉鎖的인 大學社會를 상호 補完적이고 協助的인 開放社會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점 때

문에 人的이나 物的 資源이 풍부한 歐美 大學, 특히 美國 大學에서 이 協同體制가 잘 유지·발전되어 왔다.

大學院 協同體의 효시는 1900년 美國大學校協議會(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 AAU)의 창설이다. AAU는 Harvard, Yale 등 14개 大學 總長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大學 사이의 大學院教育의 標準化에 더 큰 공헌을 하였다.

실질적인 協力體制는 192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양상도 州別協議體, 大單位協議體, 小單位協議體, 國際間協議體 등 다양화하였다.

州別協議體로는 뉴잉글랜드주 高等教育協議會(New England Board of Higher Education), 남부지방 教育協議會(Southern Regional Education Board) 및 서부지역 大學院協議會(Western Association of Graduate Schools) 등을, 大單位協議體로는 教育協同委員會(Committee on Institutional Cooperation)를 예로 들 수 있으며, 小單位協議體는 Massachusetts 協議體(4개 文理大學), Pennsylvania 協議體(4개 文理大學) 등 얼마든지 많아 현재로는 어떤 유형이든지 관여하지 않는 대학이 없는 실정이다.

최근 協力體制는 그 규모가 國際化되어 大學과 大學 사이의 協同뿐만 아니라 協會와 協會 사이의 國際協力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6월 25일, 26일 양일간 열린 韓國大學教育協議會(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와 美國州立大學協會(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Colleges and Universities)와의 제 1차 韓美大學總長 세미나라고 할 수 있다.

국내 大學院의 大規模 協同體는 1973년에 발족된, 全國大學院長이 회원이 되는 全國大學院長協議會라 하겠다. 이는 韓國의 大學院教育과 學問研究의 발전 및 大學院 상호간의 協同을 目的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協議會總會에서 심포지움을 열어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여 왔다.

실질적인 協同體制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972년부터 실시한 梨花, 延世, 西江 3大學院 學點交換制度(Cross Registration)와 1975년에 발족

한 仁荷, 中央, 崇田 3大學院協同體(Graduate Consortium)이다. 어느 協同體나 많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10여 년 가까이 꾸준한 노력과 인내로 지금까지 유지하여 왔다는 점에 큰 自負心을 느낀다.

필자는 韓國大學教育協議會에서 仁荷, 中央, 崇田 3大學院協同體를 중심으로 한, 現 우리나라의 大學院間 協同體制에 대한 原稿請託을 받고 처음에는 이에 대한 內容을 잘 아시는 분이 필자 이외에도 많이 계시므로 사양을 하였으나, 부탁을 거듭하므로 현실적인 문제를 순직히 고백하고 그 改善方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활성화된 協同體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期待와 他大學院에서 協同體를 結成, 運營하고자 할 때 한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는 意慾에 본 原稿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앞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 3개 대학교 前·現職 總長, 大學院長 등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더 활기찬 協同體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협조를 바란다.

II. 江南 3개 大學院 協同體

本 協同體는 1973년 8월 仁荷, 中央, 崇田 3개 大學 總長이 회합하여 江南地區에 있는 3개 대학교 大學院協同體를 구성하여 共同講義 및 學點交換制를 실시할 것을 논의하였으며, 1975년 6월 3개 大學院協議會를 결성하였고, 아시아 기독교 고등교육 연합재단(United Board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in Asia)의 財政的 지원을 얻어 1976년 1학기부터 결실을 보게 되었다.

本 協同體의 趣旨, 規定, 運營 및 지금까지의 實績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趣 旨

本 協同體의 趣旨文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된 인류문화와 국가의 산업발전으로 인하여 학문은 양적으로 크게 팽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문의 전문성이 더욱 요청되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여 학문의 내용

과 연구방법의 개선발전이 크게 요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대한 노력은 최고 수준의 학문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원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 과업의 달성을 위하여 대학원 협동체(consortium)의 형성은 가장 중요하고 실효적인 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미 산학협동 문제의 연구를 위하여 공동연구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또 서로 인접하고 있는 숭전, 중앙, 인하대학교의 3개 대학원이 하나의 협동체를 형성하여 학점교환제로부터 점진적으로 실시한 후 나아가서는 공동연구소 등을 운영하여 학문의 개발, 교류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함으로써 시대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 대학원 교육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이 제도의 효용을 들면 다음과 같다.

- (1) 유능한 교수진의 상호 활용
- (2) 시설, 실험기구 및 도서의 공동 이용
- (3) 학문의 개방과 상호 협동의 증진
- (4) 폭 넓은 교우 관계 및 사제간의 관계 형성
- (5) 한국 대학원 교육의 새로운 좌표 설정에의 기여

2. 規 定

本 協議體는 그 目的의 하나인 學點交換制를 運營, 管理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規定을 두고 있다.

- (1) 각 대학원 학생은 대학원간에 협의된 학과목을 타 대학원에서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 (2) 매 학기당 교환 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3) 교환 과목은 대학원에서 개설된 과목으로서 전임교수의 담당과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소속 대학원의 학과목과 중복되는 타 대학원 학과목은 선택할 수 없다.
- (5) 학점교환제에 의하여 학점 취득을 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수강신청서 2통을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6) 교환 과목에 등록을 마친 학생으로서 등

록 취소, 또는 학과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정의 취소 혹은 변경 신청서 2통과 사유서 1통을 소속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7) 타 대학원에서 수강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원의 학칙을 준수해야 한다.
- (8) 학점교환제에 참가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교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 (9) 본 규정에 언급하지 않은 기타 학무 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에 준한다.

受講申請 節次는 다음과 같다.

- (1) 이 제도에 의하여 개설된 강좌를 수강하려는 대학원 학생은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대학원의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학점교환제에 의해서 개설된 강좌의 수강을 결정한다.
- (2) 수강을 결정했을 경우 소속 대학원에서 발급하는 소정의 양식에 그 내용을 기입하여 소속 대학원에 기일내에 제출한다.
- (3) 수강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해당 강좌가 개설된 대학원에서 수강한다.

3. 運 營

協同體의 運營을 위한 제반 업무는 幹事校가 擔當한다. 학기 초에 豫算, 會議 소집 및 行務에 관한 모든 計劃을 수립하여 協議會에서 결정한다. 지금까지 幹事校는 崇田大(1976~1978), 中央大(1979~1981), 仁荷大(1982~現在) 순으로 3년씩 맡아 왔다(幹事校의 임기는 검토중임).

公式的인 모임에는 協議會(大學院長, 敎學部長 참석)가 매 학기 1회, 實務者會議(敎學部長, 敎學課長 및 主任 참석)가 매 학기 1회, 세미나 評價會가 매 학기 1회씩 있고, 幹事校가 필요하다고 소집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모임 수 있다. 모든 會議의 進行은 幹事校가 맡고, 어느 모임보다 그 분위기는 화기애애하다.

本 協同體를 運營하는 모든 經費는 自體負擔을 原則으로 한다. 금년도(1984년)에는 3개 大學院이 같이 200만원을, 幹事校는 100만원을 더 支出하였다. 주된 支出로는 共同學術 세미나 經費에 약 200만원(年 2회), 學點交換制 參與 敎授 研究補助費(1인당 10만원) 300~400만원, 기

타 巡營費 약 100만 원이고, 남을 경우에는 共同事業을 위하여 저축을 하고 부족한 경우 자 大 學院에 더 배정한다.

4. 本 協同體의 實績

本 協同體의 業績으로는 3개 大 學院 學點交換, 共同 세미나 開催, 共同要覽 發刊 및 각종 會合을 통한 大 學院間的 協助로 대별할 수 있다.

(1) 3개 大 學院 學點交換

<표 1>은 1976년 1학기부터 1984년 1학기까지의 學點交換 統計表이다.

참여 학과는 人文社會系列에 영어영문학과, 사회사업과,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철학과, 自然系列에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계산학과, 화학공학과, 화학과, 전기공학과 정도로 매우 국한되었다.

참여 학생수는 3개 大 學院의 총정원의 약 2~3%로 아주 미약한 수자이고, 학교별로는 崇田大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로는 1978년, 1979년까지는 점진적으로 증가되어 오다가 1980~1981년에는 상당히 감소

하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1983년도부터 참여 학과수나 참여 교수수가 늘어난 점이다.

(2) 共同學術 세미나

가장 큰 成果 중의 하나가 共同學術 세미나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3개 大 學院의 교수와 교수,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또 공동 關心事에 대한 自由討論을 통하여 學問的 解決의 突破口를 찾게 되었다.

<표 2>의 資料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學點交換을 실시하던 다음 해인 1977년부터 한 학기 1회씩 3개 대학원이 교대로 開催地를 바꾸어 가면서 시행하였다.

자랑스러운 것은 大 學院이 休校된 1980년 1학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최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서 발표된 論文만도 56편이나 되며 요즈음은 너무 많아 統制를 하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유사한 專攻分野別로 실시하므로 이는 大 學院間, 學科間 紐帶를 돈독히 하는 데 큰 役割을 담당하고 있고, 또 多學問的 接近方式(interdisciplinary approach)의 일환으로 높이 評價될 수 있다.

<표 1> 3개 대학원 학점교환 통계

학 기	학 과 수	과 목 수	교 수 수	학 생 수		
				본 교	타 교	계
1976. 1학기	2	4	4	9	14	23
2학기	3	3	3	6	11	17
1977. 1학기	3	4	4	10	9	19
2학기	2	5	5	11	9	20
1978. 1학기	4	7	7	15	21	36
2학기	4	7	7	13	19	32
1979. 1학기	8	12	12	26	3	29
2학기	7	9	9	12	13	25
1980. 1학기	4	6	6	7	8	15
2학기	1	3	3	2	1	3
1981. 1학기	3	4	4	16	0	16
2학기	3	6	6	2	6	8
1982. 1학기	6	7	7	7	2	9
2학기	4	5	5	1	7	8
1983. 1학기	7	16	16	11	8	24
2학기	5	12	12	7	8	15
1984. 1학기	8	13	13	5	8	13
계	74	123	123	161	147	312

〈표 2〉 3개 대학원 학술 세미나 실적

회 수	개회 시기	개회 장소	발표논문수	내 역
1	1977. 6	인 하 대	8	인하 5, 중앙 2, 송전 1
2	1977. 11	중 앙 대	4	인하 1, 중앙 2, 송전 1
3	1978. 6	송 전 대	4	인하 1, 중앙 1, 송전 2
4	1978. 11	인 하 대	5	인하 3, 중앙 1, 송전 1
5	1979. 6	중 앙 대	4	인하 1, 중앙 2, 송전 1
6	1979. 10	송 전 대	5	인하 1, 중앙 1, 송전 3
7	1980. 11	인 하 대	4	인하 2, 중앙 1, 송전 1
8	1981. 6	중 앙 대	3	인하 1, 중앙 1, 송전 1
9	1981. 11	송 전 대	3	인하 1, 중앙 1, 송전 1
10	1982. 6	인 하 대	3	인하 1, 중앙 1, 송전 1
11	1982. 11	중 앙 대	3	있하 1, 중앙 1, 송전 1
12	1983. 5	송 지 대	3	인하 1, 중앙 1, 송전 1
13	1983. 11	인 하 대	3	인하 1, 중앙 1, 송전 1
14	1984. 5	중 앙 대	4	인하 1, 중앙 2, 송전 1
계			56	21 18 17

(3) 共同要覽 發刊

1982년 中央大學校가 幹事校로 있을 때 「江南 3個 大學院 共同要覽」을 發刊하여 공동 發刊事業도 착수하게 되었다. 취지, 학점교환 현황, 합동 학술세미나 현황, 3개 대학원 교과과정표, 구성위원 순으로 되어 있다. 물론 현재로는 改定된 부분이나 새로운 實績이 많아 새 共同要覽 發刊을 서둘러야 되리라고 본다.

(4) 各種 會晤를 통한 大學院間의 協助

大學院間의 協議會, 實務者會議 및 評價會에서는 協同體 運營에 관한 事項을 주로 다루지만, 각 대학의 자율적인 문제(입학시험, 외국어 및 종합시험 운영, 논문지도 체계, 실험실습비 사용, 각종 경비 운영 등)에 관하여도 허심탄회하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므로 편리하고 효율적인 學務運營을 해 나가면서 均衡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 서로의 애로 사항이 있으면 서로 도와 주는 協調體制를 유지하고 있다.

Ⅲ. 大學院間 協同體制의 改善方案

1974년 全國大學院長協議會는 1회 심포지움을 통하여 協同體制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자 기관에서는 財政의 후원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시기를 요구한 바 있다. 또 거의 每年 이 문제가 언급되었고, 작년 韓國大學教育協議會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토론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오늘날 協同體 現況을 살펴보면 앞서 소개한 仁荷, 中央, 崇田 3개 大學院 協同體만 서로 결성되었을 뿐, 먼저 생긴 梨花, 延世, 西江 學點交換制에 대해서는 오히려 초창기보다 관심이 줄어지고 있다는 견해도 있는 것 같다. 이 사실은 協同體制을 土着化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표 1〉에서 보여 준 바와 같이, 仁荷, 中央, 崇田 3大學院 協同體도 겨우 命脈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에 따른 평소 느껴 온 문제점과 필자 나름대로의 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協同體를 結成하고자 할 때 큰 經濟的인 期待를 버려야 한다.

期待가 크면 失望 또한 크다. 비근한 예로 이 制度를 만들고 開設科目이나 實驗費支援에 등한시한다면 이는 得보다 失이 많을 것이다. 보다 더 長期的이고 內質的인 면에 치중하여야 한다.

江南 3개 大學院은 이 점에 크게 간섭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였다고 본다.

2. 學生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식이 아쉽다.

學點交換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동력(driving force)은 積極的인 참여 의식이다. 아직도 우리 나라 學生들은 ‘體面과安逸’이 ‘當爲와開發’보다 앞서는 것 같다. 한 學科에 대하여 3개 대학원이 각기 다른 科目으로 네 강좌를 開設한다면 學生들은 12개 강좌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 선택의 폭이 아주 넓다. 자기가 꼭 원하는 과목이라서 신청하기보다 ‘本校 教授가 담당하는 科目’이라서 하는 체면과 ‘좀더 學點을 취득하기 쉽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큰 저해 요소이다.

3. 教授들의 協助가 要望된다.

學生들의 참여 의식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教授들의 적극적인 협조라 하겠다. 아직도 필자를 포함한 우리 나라 教授들은 開放的인 면보다는 閉鎖的인 면이 많다.

學生들의 수강 지도를 할 경우 本制度를 學生들에게 알려 활용토록 권장해 주고, 각 大學院의 學科間的 유기적인 연락을 통해 미리 科目이나 擔當教授를 결정하므로 均衡 있는 운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

또 가르치는 教授의 입장으로는 他大學院 學生들이 칭찬할 경우 여러 가지로 부자유스러운 점이 많다. 사실 많이 참여해 줄 것을 강요하면서 충분한 研究補助費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4. 大學院 行政의 改善을 바란다.

大學院 學生들의 참여나 教授들의 協助를 얻지 못하는 때는 大學院 行政팀의 責任이 크다. 수시로 학과 주임교수 회의나 學生들의 모임을 주선하여 충분한 案內를 해야 하고, 大學院別 時間表를 일찍 作成, 交換하여 수강신청 업무가 시작되기 훨씬 앞서 각 學科로 배부하여 이에 따라 지도하여야 하는데 이 모두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學點交換科目 選定도 개설하기 전 학기에 學點交換을 원하는 學科와 科目을 신청받아 해당 학과 주임교수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로는 많은 科目이 동시에 交流가 일어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

5. 새로운 프로젝트의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까지 大學院間的 協同體는 學點交換, 共同 세미나 開催, 協議會를 통한 協助단을 주로 해 왔다.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여야 하겠다. 그 內容으로는

(1) 共同論文集

(2) 共同研究事業 推進

(3) 共同圖書館 運營

(4) 값 비싼 實驗器機의 共同購入과 共同利用 등을 들 수 있으며 어느 하나 실행 불가능한 것이 없고, 모두가 經濟的인 절약을 가져올 수 있다.

6. 충분한 財政的 支援이 필요하다.

協同體를 원활하게 運營하는 데는 많은 경비가 든다. 江南 3개 大學院 協同體는 自體負擔으로 간신히 꾸려 나가고 있으나, 갑자기 많은 學生이 學點交換에 참여한다면 당장 적자 예산이 된다. 또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教授들에게 많은 協助를 요구하면서 별로 支援을 해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새로운 프로젝트를 開發하기 위하여는 많은 研究가 뒤따라야 하므로 예산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大學院의 역사가 40년이 가까와지지만 大學院 나름대로의 시설을 갖춘 大學은 잘 찾아 볼 수 없다. 작년 처음으로 文敎部에서 大學院을 위한 IBRD 支援計劃을 세웠으나 금리가 너무 높아 대부분의 대학에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얼마 전 大學評價教授와 文敎部擔當官에게 協同體를 위한 支援과 大學院을 위한 시설 자금 지원 또는 低利融資 알선을 정책에 반영시켜 줄 것을 建議하였다.

Ⅳ. 外國 大學과의 協同體制

머리말에서 協同體制가 國際化되어 가는 추세를 설명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많은 大學이 미국, 아시아, 유럽에 있는 여러 大學과 姊妹結緣을 맺고 서로 交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學點交換制와 같은 구체적이고 알찬 교류를 하는 大學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

여기에 崇由大學校와 University of Alaska, Fairbanks (UAF)와의 交流計劃(Exchange Program)을 소개해 보기로 한다.

이 計劃은 1982년 5월 12일 조인되었으며, 1983년 8월 協議覺書(Memorandum of Agreement)에 따라 本 大學院 學生 5명을 屢신하여 UAF로 派遣하였다.

協議覺書에 따르면 交流는 단기하계과정, 정규과정 및 교직원 교류로 되어 있고, 交流學生은 등록금 일체를 本校에서 납부하고 相對校에서 修學하여 學點을 인정받게 되어 있다(國內 學點 交換制와 同一). 금년에는 두 명을 派遣기로 되어 있으며(8월 출국), 지금까지 自然界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進 系列로 폭을 넓힐 예정이다. 또 1985년에는 UAF에서 3~4명의 學生이 本校에 오도록 되어 있다.

教授交流도 상당히 진척되어 왔으며 필자도 지난 4월 U.B. 재단의 후원으로 2주일간 UAF를 방문하였다. 그곳에서 1차 派遣된 우리 學生들이 어느 외국인 유학생보다 공부도 잘하고 예절이 바르다 Korea가 가장 인기 있는 나라라는 말을 그곳 教授나 學生을 통하여 듣고 國際交流의

重要性에 대한 재인식과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필자는 지금 Alaska 州의 많은 資源(현재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과 UAF의 유능한 教授들을 서로 同伴者的 立場에서 어떻게 活用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각별히 研究하고 있다.

V. 맺는 말

대학원 학생수의 증가, 학문의 전문화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의 해결을 위한 「大學院間 協同體」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씨를 뿌리고 가꾸어 열매를 맺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지금까지 仁荷, 中央, 崇田 3개 大學院 協同體를 중심으로 그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 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지나친 기대를 버리고

둘째,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바람직하며

셋째, 교수들의 협조가 요망되며

넷째, 대학원 행정의 개선을 바라며

다섯째, 새로운 프로젝트의 개발이 뒤따라야 하고

여섯째,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끝으로 崇由大—UAF 交流計劃의 소개에서 시사받을 수 있는 바, 협동체의 국제 시대를 맞은 오늘날 단순한 방문 교류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동반자적인 국제 교류로 탈바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해 둔다. *